

한경훈 / 3월 / 도약 GS / 5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34241	20.5	14	18	11.5	64	1	4.17%	7	24
529059	19	13.9	16.5	11.5	60.9	2	8.33%	7	
534807	19.6	13.5	16.5	10.5	60.1	3	12.50%	6	
529237	18.5	13	15	10	56.5	4	16.67%	5	
529402	19	12.5	13.5	9.5	54.5	5	20.83%	5	
534175	19.1	13	13.5	8.5	54.1	6	25.00%	6	
534342	18.5	13.5	12.5	9.5	54	7	29.17%	7	
534423	19.6	12.4	13	8.5	53.5	8	33.33%	6	
529277	18	12.5	14	8	52.5	9	37.50%	4	
534355	18	13	14	6.8	51.8	10	41.67%	5	
534222	18.5	12	13	8	51.5	11	45.83%	5	
534426	19	11	10.5	10.5	51	12	50.00%	5	
534165	17	12.5	10.5	10.5	50.5	13	54.17%	4	
534187	18.5	13	14	5	50.5	13	54.17%	4	
534313	20	9.5	13.5	7.5	50.5	13	54.17%	6	
534391	19	12.5	11	7.5	50	16	66.67%	6	
528964	20	13	10.2	6.5	49.7	17	70.83%	6	
534201	19	11.9	10.5	7.5	48.9	18	75.00%	6	
534163	17	12.4	12.5	5.5	47.4	19	79.17%	6	
534230	14.5	12	13.5	7	47	20	83.33%	4	
535363	18.5	10.5	10.5	7	46.5	21	87.50%	4	
534188	14	11.5	11.5	7.5	44.5	22	91.67%	4	
534383	17	12	7.5	7.5	44	23	95.83%	6	
534397	18	9.5	8	0	35.5	24	100.00%	4	

한경훈/2월/도약GS/5회/1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통문제로 푸는 문제라서 강약조절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설문 1번은 대부분 비슷한 답안을 써주셨고, 설문 2번이 답안이 다양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상표유사판단 누락 많았습니다. 사안포섭이라도 필요하며, 판례 기재하신 경우에 추가 배점했습니다.</p> <p>권리남용에 대해서 판례 2개 모두 기재해주신 분들에게 추가 배점 했습니다. 강약조절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무효심판에 대해서, 무효사유 판단 누락 많았습니다. 사안포섭에 섞는 것보다는, 무효사유를 따로 판단해주는 것이 가독성이 더 좋았습니다. 그 외 조치에 대해서도 목차로 따로 빼서 판단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3. 소결</p> <p>대부분 잘 써주셨으나, 창작물수록 상품에 대한 취급 판례 암기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답안 구성이나 흐름은 깔끔하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p> <p>가독성 부분에 있어서, 설문이 바뀔 때에는 한 줄이나 두 줄 띄우고 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p>	

한경훈/2월/도약GS/5회/2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단문 느낌의 문제와 침해 판단 및 항변에 관한 문제로 설문 2에서 점수가 변별되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묻는 바대로 목차 잡는 것이 점수받기에 더 좋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단문 > 조치 > 그에 따른 결과로 크게 목차를 잡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제1사용태양과 제2사용태양 각각 포섭이 필요하며, 108조 1항 1호와 108조 1항 2호 내지 4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의의, 취지를 써주신 경우에 추가 배점했습니다.</p> <p>선사용권에 대해서도 99조 1항과 99조 2항에 대해서 각각 포섭이 필요합니다. 누락하시거나 묶어서 쓰시거나 줄처리로 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두껍게 써주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상표 답안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하나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문제처럼 문제에서 묻는 바대로 목차를 잡으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2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들 잘 쓰십니다. 화이팅입니다!</p>	

한경훈/2월/도약GS/5회/3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단문, 침해 여부, 손해 배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대부분 잘 맞춰주셨으나, 강약 조절을 잘 했는지와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점수 차가 갈렸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간단한 단문 문제였습니다.</p> <p>등록요건, 보호요건, 구성태양, 사용태양 등의 키워드를 적절히 작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각 규정의 의의, 취지나 보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의미 판례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실제 판례를 고려했을 때 제90조1항2호 검토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기각 심결이라 작성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심결과 판결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 주세요.</p> <p>배점이 큰 설문이므로 유사판단, 상표적 사용, 효력 제한에 대한 적절한 판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3) 설문 3</p> <p>110조 3항의 의의, 취지를 작성한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침해 여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 위 요건도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p>	

3. 소결

비교적 까다롭지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다수의 답안지가 강약 조절이 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중요한 논점은 강하게, 그렇지 않은 논점은 약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GS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답안을 분석해 보면서 강약 조절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합니다.

한경훈/2월/도약GS/5회/4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단문, 판례를 물어보는 설문으로 이루어진 문제였습니다. 설문 1은 비교적 간단했을 것 같고, 설문 2도 판례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의의, 요건,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甲이 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시기적 요건만을 검토해 주셨 는데, 주체적 요건도 함께 포섭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2) 설문 2</p> <p>선결적으로 조문의 의의와 취지를 작성하고, 메인 판례를 두껍게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배점이 비교적 크므로 사안포섭 또한 풍부하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사안 포섭 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포섭을 할 때 키 워드를 따옴표로 작성할 경우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p>3. 소결</p> <p>까다롭지 않은 설문이었기에 대부분 답안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아직 2월이기에 암기가 덜 되어 단문 문제 풀이에 자신 없어 하실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단문 문제는 다들 비슷하게 작성하고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문을 완벽하게 쓰려고 시간을 쓰기보다는 다른 설문에 더 시간을 쓸 때 더 효율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p>	

[문제-1] (상표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에 의거하여 한다.)

I. 실문 (1)

1. 침해금리청구 조항에

상표권과 같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리를 청구할 수 있다.

2. 쟁점 정리

①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비제적 권리로서 일응 유효한 것이고, ② 甲과 乙의 상표는 외관상 같은 차이가 있으나 '진한케이'라는 문자 부분의 형태가 동일·비슷한 점에 의해 출처 인식·혼동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며, ③ 乙의 사용상표인 '음반'은 甲 제정 상표와 동일한바, ④ 乙의 상표적 사용 여부, 신사용인 여부 및 침해행위의 행위 여부, 손해 배상 여부 논한다.

3. 乙의 상표적 사용 여부 (적부)

(1) 상표적 사용 의미

상표적 사용이란 ① 형식적으로는 조목 2호 1호 각목에 해당하며, ② 실질적으로는 자타상품식별기능 및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으로 의미한다.

(2) 창작성을 충족 작품을 제3자의 행위

1) 원작



제국은 시식 등의 내용을 존속할 뿐 자과상등식별기능 발휘하지 않는 바, 자선나 타인의 신용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

2) 예외 - 시리즈물

다한 항목들의 상권. 제도가 항목들의 내용을 존속하는 여부. 사용처양. 양의 편제 순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사실 여하에 따라 수의자에게 식별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제도는 자과상등식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안

- ① G의 "진한게씨" 음반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집을 제작. 판매한 시리즈물로서 편집 음반에 해당하는데,
- ② 이러한 편집 음반 특성상 제도는 항목들의 내용을 존속하기보다 제작. 판매 물리를 주시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 ③ 순차 "진한게씨"가 항목적인 음반 내용을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④ 그 부제가 오히려 수의자로서도 "진한게씨"를 통괄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음. ⑤ G의 오랜 기간 양고. 판매로 "진한게씨"는 신용 출세로서 추한 상환이 된 점을 고려할 때, ⑥ G은 "진한게씨"를 상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4. G의 신사용권 등록 (각각)



4) 제 99조 1항 신사용권

신사용과 및 두가 보호를 위하여, 상품 출원 권역
하 부정명칭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한 상
표로서 특정한 상품출처로 약정한 경우 신사용권이
인정된다.

(2) 4안

① 2은 甲 출원 권역에서 '원판거리'로 사용하,
② 甲 출원 양서 이미 주권을 획득하였으며, ③ 2은 사
용태양으로 본아 부정명칭목적도 없다 한 것임, ④ 오
히려 4(1)에 따르면 음반에 허락된 상품은 음반
제2·2번에 따라인 2에게 귀속되는바, ⑤ 2은 제 99조
1항의 신사용권은 가진다.

5. 권리 제한 여부 (2주)

(1) 제 90조 1항 2호 위·취지

보통명칭·기술적 관습 등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상한 관습에 따서는 권리작용성이 없다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2) 항복을 취득 각종 제도의 경우 4(1)

1) 원칙

사각의 제목 등은 그 항복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불가하여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상과 같은 성질을

가치는 바, 상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예외 - 시지스틀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사용 지양·사용 의도 및 경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 식별가능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상충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사안

- ① 상충한 바의 같이 2의 "신선거리"는 2의 사용 지양으로 보아 클레르가 기능을 수행하며, ② 2의 사용 의도 역시 식별가능성을 위한 것이니 한 것인바,
- ③ 2의 사용에 따해서는 상충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6. 甲의 권리남용 여부(각각)

(1) 법적으로 보았을 때 가차 없는 사용에 해당

상충권자의 상충 출원·등록 경위 및 상충권 행위에 이르기까지 의도·과실 등을 살펴, 상충권자의 등록·사용이 법적으로 보았을 때만 가차 없는 경우, 신사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그러한 상충권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하릴 수 없다.

(2)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

상충권이 등록된 이상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무효 상충권 행위를 간파하는 것은 유한하나, 상충권이 행되나오면

우리라고 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하거나 사의
행위에 반하여 권리 이익을 해하여 상대방 입법 위
격으로 배타하는 바,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상대방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권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사안

① 甲 상표는 그 상표 사용 사실을 안면으로 그 상표의
신용에 부응하여 평등한 목적으로 출회·등록된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② 식문 (나)에 부속한 바와 같이 무효사유가 있어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바, 그 후 이에 대해 권리남용
행위하여 법원은 판단 가능한 것이므로, ③ 이하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甲 상표의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7. 식문의 해명-가각판결 예상

① 그 상표의 주창과 권리남용의 행위로 판시함,
② 그 후 甲 상표로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서, ③ 가각
판결이 예상된다.

II. 식문 (2)

5.5

1. 논쟁점

① 그도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甲 상표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확실하다. ② 甲의 등록에 대한 권리 침해를한다.

2. 무효심판 청구

(1) 무효심판 청구이유

본청의 발원의 해결수단으로서, 금식 한가위 같은 상표
를 등록시키는 제도이다.

(2) 각부 원판 - 이혼관계인 여부(각각)

그는 등록상표로서 甲 상표와 동일하게 대해 등록한 이
혼관계는 가려 심판청구인 각부가 있다.

(3) 본안 원판

1) 2조 34조 (상 9호 해당 여부(각각))

① 그 상표는 甲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등록한 상표에
해당하며, ② 甲. 그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고,
③ 상표 역시 '음반'으로 동일하다. ④ 甲 상표는 2조 34조
상 9호의 무효사유가 있다.

2) 2조 34조 (상 12호 후관 해당 여부(각각))

① 그 상표는 甲 출원상표 특성의 상표 출원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② 甲. 그 상표 유사, ③ 상표 동일하고,
④ 출원상표로 인한 후관 기한 연장이 있어 해당
무효사유 존재한다.

3) 조 34조 1항 1호 제항 여부(각각)

- ① 2 상품 국내에서 甲 출원 당시 제1인 상품인점,
 ② 상품·상표가 유사하여, ③ 甲은 2의 제1항 제항에
 관여한 바로서 상품에 부응 가능한 부응할 목적이 인
 정되는 점 여한 때, ④ 본 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조 34조 1항 2호 제항 여부(각각)

- ① 甲은 2의 제1항 제항에 관한 사실, ② 2의 상품
 사용 사실을 관 관청에서 유출한 바에 출원·등록한 바,
 ③ 본 조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

따라서 조 34조 1항 1. 2호 제항. 13호. 20호의 무
 효사유로 인해 甲 상품은 무효판결로 소결 판결
 것이다.

3. 기하리

2는 甲 상품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들어 상품인 점.
 소결 취하 등을 권제한 두 있다. [결]

20.5

[문제-2]

I. 문제 (1)

49

1. 손해배상청구권 조 58조

마르티의 의뢰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손해
 상환 보충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범위 내 무관 사용하
 는 것에 대해 업무상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법원 하 인원은 법원적 행위이다.

2.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원인 및 행위

①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후 손해배상청구권 유무는 각기 상
 과 중립. 유무상 손해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후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해야 하며(조 58조 1항), ② 법원 후 상응한 손해배상청구
 권리 상응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③ 상응한 손해배상청구권 청구에 행사할 수 있다.

(조 58조 2항, 3항)

3. 상응권자의 손해 조 58조 4항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와 상응권의 행사를 상호 독립적이다.

4. 甲이 취해야 할 조치

①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후 조 58조 5항에서 그의 취지에 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② 甲은 손해배상청구권 후 그에게

사건으로 정산하거나, ③ 출원심인 권이나도 출원서 사본
을 제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 정에 따른 선과

甲은 선상등록 이후, 그의 정 후부터 선상등록 때까지
상용 사용에 대한 임의성 등에 상용을 보장하는
행위할 수 있다.

II. 선문 (2)

9.1

1. 제1사용태양의 경우

(1) 유사범위 침해 조항 108조 1항 1호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침해
로 간주한다.

(2) 사안

① Y는 A의 조와 유사한 상표로, ② Y는 C와 유사
한 상표인 B에 상용을 그의 행위는 ① 조 108조
1항 1호에 따라 침해에 해당한다.

2. 제2사용태양의 경우

(1) 간접침해 조항 108조 1항 2호 내지 4호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그 식별상표나 동일·유사한 상표에 사용하거나 사용케한 목적으로 소비·판매·위로·모로 또는 대하는 행위(2호), ② 등록상표를 위로·모로하거나 위로·모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통구를 제작·소비·판매·대하는 행위(3호), ③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상표가 표시된, 식별상표나 동일·유사한 상표를 양로·인도하기 위해 대하는 행위(4호)는 직접침해는 아니나 그 관행에 행하여 간접침해로 인정한다.

(2) 사안

2이 상표가 표시된 상품 6은 양로·인도하기 위해 대하는 행위를 제108조 1항 4호에 해당하여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3. 2 부당 행위의 사위

(1) 제499조 1항 신상권 부당

1) 제499조 1항 신상권

신상이 및 수차 보호를 위해, 후진 권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하여 후진시 후진인의 상표 후진로 인식된 경우 신상권이 인정된다.

2) 사안

① Z은 ㄱ 후진 권부터 Y는 계속 국내에서 사용했으며,
② 그 결과 ㄱ 후진시 이미 후진인의 상표 후진로 인식되어,

③그에게 부정정병 목격이 없다는 사실로 보아, ④지극히 2항 신의충실 인정된다.

(2)지극히 2항 신의충실 위반

1)지극히 2항 신의충실

영세적인 보호를 위해, 자기의 생명, 재산 등 인격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수단을 생애 관행에 따른 상응하는
 권리의 침해에서 계속 부정정병 앓고 있어 생애 신의충실
 인정된다.

2)사안

①그는 각자의 생애 보다 중대한 양도 또는 사용에
 관한, ②국내에서 출생 권리의 계속 사용에 대하여,
 ③부정정병 목격이 보아, ④생애 보다 중대한
 권리를 생애 관행에 따른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아, ⑤지극히 2항 신의충실 인정된다. [결]

14

[문제-3]

I. 식별(1)

3

1. 조 33조 1항 3호 규정 위반

특수인으로서, 특허 상표 상표의 상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정성 및 구분능력이 있는 경우 등록
불허한다.

2. 조 90조 1항 2호 규정 위반

보통인으로서, 특허 상표와 관계 없이 자유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통상에 대해 상표의 현상이 제한된다.

3.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관습한 통상" 차이

① 조 33조 1항 3호의 경우 특수인의 구성 자체가 갖
는 특정성 및 구분능력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반면, ② 조 90조
1항 2호의 경우 상표의 구성뿐 아니라 사용태양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 특정성의 여부를 판단한다.

II. 식별(2)

8.5

Gloop

1. 손해배상청구 조 109조

상표권나 등록 권리로 인한 손해를 침해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2. 쟁점쟁이

- ① 甲 상표의 '변제 양만'과 乙 상표의 '양만'은 상표
의 특징 및 기비모양 고려 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
나, ② 乙의 상표권 사용 의무, 甲. 乙 상표의 권리 의무,
乙 상표에 대한 권리 제한 의무가 존재한다.

3. 乙의 "INTARSIA" 상표권 사용 의무(소극)

(1) 상표권 사용 의무

- ① 형식적으로는 乙가 乙의 상품 1호 각쪽에 해당하여, ② 상표권
이라는 권리상 사용의무를 하는 사용을 의미한다.

(2) 상표권 사용 관련 기능 차이

- 실제 기비모양에서 乙의 두 가지에 식별력으로 인하여
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한다.

(3) 4안

- ① 乙 상표에서 "INTARSIA"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활~~ 후술한 바와 같이 "INTARSIA" 보다는 "BASIC
EUE" 부분이 식별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③ ~~원~~
"INTARSIA"는 식별력이 없으며, ④ 乙은 이를 상
표권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甲. 乙 상표 유사 여부 (소극)

(1) 식별력 관련 여부 차이

상권의 구성 중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존재가능성은
수행가능 부분, 즉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상권의 구성요소
전부 유리를 위해 의무한 개체 유무 여부를 내세울 수 없다.

(2) 사안

① 甲 상권은 영미 한불 음역이 첨가되어 그 특징인 한
글 부분으로 한글·한영이나 한 가르미 (부호제). ② 乙 상
권에서는 후한 바티 같이 "INTARSLA"의 특색이
있어 그 바티 큰 상대적 특색이 강한 "BASIC
ELLE"가 어미 가르미 한 가르미, ③ 甲 상권의
"인파르다아"와 乙의 "BASIC ELLE"를 대비할 때
④ 그 다른 호칭·선명 모두 상이한바, ⑤ 흔히 호칭
영역이 넓은 바티 상권에 해당한다.

5. "INTARSLA" 등록 위한 여부 (각각)

(1) 조 90조 1항 2호 위·취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보통명칭·상호의 상호
등을 본질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표시한 상권에 대해
상권의 등록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

(2) 가늠자 중심 표현방법 (부호제)

① 가늠자로서의 성격. 상호 4인 선명, 개체명 등을
근거하여 적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② 가늠자로서

연하여 두자가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두 개의
면 이에 해당한다.

(3) 사안

① 'INTARSCA'는 제품의 특성상 등을 디자인하는
기술적 기술용어로서 그 자체로는 일반국민이 양질의 인공
제 구제적 의미를 갖지 못하여 지적 재산권. ② 그 중에서도
"BASIC ELLE"는 하반부에 크게 배치되어 리플 브랜딩
이름 등으로 인식되어 두는 반면, ③ 'INTARSCA'는
상품의 성격인 '신발', 양질의 의복인 'SNEAKERS',
상품의 성격인 '신발'과 '의복'과 '신발'과 함께
배치된 이름으로 쓰여있는 바, ④ 여러 두자가 그 구제적
구제로 직감적인 흔적으로 'INTARSCA'가 상품의 성격인
인공제 등과도 관련 있는 바, ⑤ 그 양면에서
이러한 사용례를 보아, 'INTARSCA'는 상품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인식하여 양질의 등과도 관련 있는
것이 보이며, ⑥ 이로써 본 사안에 해당한다.

6. 심판의 해설 - 기각판결 예시

따라서 그 결과는 甲 상표를 침해하지 않아 기각판결
이 예상된다.

III. 실문(3)

6.5

1. 장형경씨

① 丙의 'INTARSLA'는 '인타르시아'에서 '인타르시아'로
 호칭이 甲 상표와 동일 하기 유사한 호칭은 가변, 권리 내용
 영계가 다른 유사상표이다. ② 등록 상표로 '형태 양한'은 유산
 한 바, ③ 丙의 2차-2차 인영 여부가 무더 존재 인영 여부가
 존재한다.

2. 丙의 2차 인영 여부(각각)

(1) 丙의 주형 여부 문제

① 상표권은 등록하면 상표정보 등에 공시된 인영 여부에
 권리 주위를 가짐이므로 그 권리를 안 두 권. ② 상표권
 양도 시 상표권 자에게 주지자를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
 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 丙의 주형 여부
 특허권 등과 같이 볼 이유는 없다 바. ④ 상표권은 침해
 한 자에게는 침해에 대한 丙의 주형 여부.

(2) 사안

① 丙은 상표권 사용자로 甲의 주형 여부나 유사한
 상표권 유사한 상표에 사용의 공해를 구성하도 바,
 ② 丙의 상표권의 권리를 가지 못한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③ 丙의 침해에 대해 丙의 주형 여부.

3. 甲 손해 인정 여부 (노)

(1) 조 110조 규정 해서 손해 발생 여부 판례

조 110조의 손해액 청구 제정도 표상권이나 증명책임을 정립해 주는 취지나 손해 발생이 없는 범위까지 손해는 인정하는 제정도 아닌데, 손해배상청구하는 상권은 자원이 특수성을 지닌 상권에 사용하며 손해가 발생했는지 청상 입증해야 한다.

(2) 특수성 사용 범위 판례

특수성을 사용한 것도 특수성 그 자체로는 타 제품명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따져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는다.

(3) 사안

① 백 주위 황새가 인정된 하더라도, ② 甲은 甲상 표를 상징상과 동등하게 인정된 '윤종화'에 상를 인하, ③ 상을 익지 개체 동등 상이 아닌 주지 상에도 동등 인정 안고, ④ 甲은 자신의 상을 상징 상에 사용 하고 조로 손해가 유지 안다.

4. 실문의 해설 - 가학원칙 예시

해설이 손해 발생으로 가학원칙이 예시 안다.

[문제 - 4]

I. 실문 (1)

6.5

1. 제1항 조 55조의 2 <(1) 제1항 조 위·취치
특정인 편의 및 상의 신봉을 위하여, 기권행위 받은 자는
제1항을 행할 수 있다.

(2) 요인·결과

① 기권행위 받은 자 ② 기권행위를 승낙함으로써 3개월
내에 ③ 본인과 함께 행 가능하며, ④ 이에 위변을
함께 행할 수 있다. (조 55조의 2 1항, 2항)

(3) 효과

① 기권행위를 취한 것으로 봄 (조 55조의 2 3항).
② 제1항 조 기권행위가 행된 경우 등록청장이 인정한다.

2. 기권행위에 대한 상환 조 116조

(1) 기권행위에 대한 상환 위·취치

기권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상환으로, 특허상환청에 기권
행위를 다룰 수 있는 권리이다.

(2) 요인·결과

① 기권행위 받은 자 ② 기권행위를 승낙함으로써 3개월
내에 가능하며, ③ 상환청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위 가능
하다. ④ 기권행위 받은 상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3) 효과



인용심판이 있는 경우 등록권은 부여된다.

3. 甲의 권화 인용 거부(각)

(1) 제삼자 권화 인용 거부

- ① 기권권행등본 등각인력부터 제삼자가 사내 양자 제삼자 권화 가능하여. ② 이때 본당은 두원만 득 원고, ③ 다른 제삼자에 따른 기권권행이 본당 기권권행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경우에 환한다.

(2) 기권권행에 대한 심판의 경우

- ① 기권권행등본 등각인력부터 제삼자가 사내 양자, ② 甲은 기권권행 본당 y심중에 대해서만 해당 심판 개재 가능하다.

II. 심판 (2)

1. 정정권

본에 관한 기권행위를 미리 총내리 하고 심판당국을 기각한 것에 권화적 위법이 없으니 진판한다.

2. 조 123 조항 및 조항의 조 55 조항

- ① 조 55 조항에 따라 위변기회력을 복제해야 하는 바. ② 이때 해당 심판당국 기권권행에 이윅치 다른

개인아유를 변환한 양으로 통행한다.

3. 22, 1232 1항, 3항 후의 4항

특정인의 권리권을 변환한 상태에 권리를 개하여 신화를 개하여 위한 통행 양에서 개인은 강행규정이다.

4. 심판에 기한 개인아유의 경우 4항

심판에서 이미 통행한 개인아유가 여러므로, 개인아유의 아유에 통행하여 통행하면 다른 개인아유에 해를 받거나, 신변상치로 위험을 개하여 또 통행의 개하여 복여할 수 있고, 통행한 통행한 사람이 개하여, 개인아유의 후나 다른 개인아유를 개하여 통행은 개하여 다른 위험사건 한다.

5. 사안

① 심판에서 이미 통행한 개인아유가 여러므로 하였으나 개인아유의 아유로 통행 양으로, ② 이미 통행한 아유 개인아유에 통행한 심판 양으로 아유로 통행 양으로 바, ③ 아유 개인아유의 아유로 다른 개인아유로, ④ 아유 다수의 개하여 개하여 개하여 통행 양으로 22, 1232 1항, 3항에 바한다.

6. 심판의 해설 - 해설서 해설 양으로 강행 위법 사건 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1>

I. 질문 (1)

17.5

1. 침해금지청구 의의 취지 - 법이요건 이행

상표권자의 방해를 위해, 상표권자 등은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침해금지청구 할 수 있다.

2. 동일 권리

甲의 권리는 2024. 8. 13에 등록결정된 상표로서 유한한 상품권 존재하고, 乙이 사용하는 상표와 甲 등록 상표는 외관의 배치상에서도 다른 차이가 있으나 관념과 형상이 서로 동일하므로 유사 상표를 동일 상품에 사용한 것이다. 상표권 사용·위사용권 결부·분리제하 여부·권리남용 여부 묻지된다.

3. 상표권 사용 여부 - 적극

(1) 상표권 사용 의의 - 취지

상표권 사용이란 221항11호의 행위로서 자타상품식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로 사용 취지

1) 원칙

서지 등의 제호는 본래 그 상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라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식별표지로서 사용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예시

상품의 성질, 내용, 시리즈를 출시 여부, 사용기간, 사용형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식
별표지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적으로 사
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안

2은 2017년 10월경부터 '전한커피'를 사용하고 습차공으
로 부제를 달아서 사용한 점, 2의 광고활동과 판매
로 '전한커피'가 상품 출현으로서 각지하는 상표가 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의 제호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상품 출현표지,

4. 전사용권 검토 - 제국

(1) 위조 상품 의미, 취지

진정한 전사용권자가 본래 및 승인자 분를 위해 상품
표기 하 전사용권 발생한다.

(2) 사안

2은 甲의 출원 제부터 계속 제호를 사용하여 甲 출
원시에 이미 국내 각지 상표가 되었고, 2에게 부제
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은 전사용

권 인정된다.

5. 권리 제한 여부-답

(1) 9021호 2항 4호의의 취지

색별권 없는 포장의 자유사용 범주를 위해,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품 등을 소용으로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권리 미치지 않는다.

(2) 제한의 경우 사례

1) 원칙

제한은 서적의 내용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포장으로 인식되는 바 특정상품권 권리 미치지 않는다.

2) 예외

서적 등의 시리즈를 출시 여부, 사용형태, 사용기간, 광고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의 출시표지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리 제한될 수 없다.

(3) 사실

Z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집부터 5집 시리즈 음반을 제작한 점, Z의 지속적인 광고, 선례 활동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Z의 제한은 상품의 출시표지로써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 상표권 권리 제한되지 않는다.

6. 제3자행위 여부-지극

(1) 법상 보호 가치 없는 권리행사 사례

상표의 출원·등록 목적, 출원 경위, 상표권 행사 방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 제3자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이는 법상 보호 가치 없는 권리 행사로서 제3자행위 해당되어 상표권 행사할 수 없다.

(2) 무효된 것이 명백한 경우 사례

상표권이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한 권리행사는 실질적 당사자 행동. 공익, 상표법 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제3자행위 해당되어 행사할 수 없다.

(3) 사안

甲은 음반의 상업적 성공에 관한 사정은 잘 알고도 2의 허락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바 이는 법상 보호 가치가 없는 권리행사에 해당하긴, 후속할 바타 같이 甲 상표권은 2002.10.9.12.13.20에 무효사유 존재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한 상표권 행사는 제3자행위에 해당한다.

7. 결론-기각판결

Ⓢ 무리판결



甲의 침해금지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II. 질문 (2)

6.5

1.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취지 - 법 117조

불쟁의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에
무효사유 존재하는 경우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1호 여부-적극

"진한커피"는 상품 출제로서 甲 등록특許시 기준으로 극지
상품이 되었고, 甲은 유사 상품을 동일 상품에 출제
했으므로 불 무효사유 있다.

(3) 제1항 2호 2단 후단 여부-적극

"진한커피"는 甲 출제 등록특許시 기준으로 2의
상품 출제 표시로서 극지한 상품이 되었고 유사 상품
은 유 동일 상품에 출제한 바 출제 등록으로 인한
수익자 기만 영려 있으므로 불 해당한다.

(4) 제1항 3호 여부-적극

"진한커피"는 甲 출제시 기준으로 2의 상품 출제 표시
로서 극지 상품이 되었고, 2 상품과 유사 상품을 출제
하여 2의 신용이 훼손하고 2에게 극지 행사하
려는 부당한 목적 인정되므로 불 해당하는 무효
사유 존재한다.



(5) 342 항 20호 여부-이유

甲은 乙 음반 1, 2집 제작시 ^{수록곡} 수록곡 선택, 배열, 편집마침에 상당 관여한 자로서 선의 관계 인정되고
甲은 상품 사칭을 잘 알고도 乙 허락없이 유사
상품을 ^{동일} 동일 상품에 출원하바 불합 무효사유 있다.

(6) 2항

乙은 甲을 상대로 342 항 9, 12, 13, 20호 해당항
은 이유로 무효사유 청구할 수 있다.

2. 상품권 폐기 ^{양도} ~~취유~~

乙은 甲 상품권 하자 결재함을 이유로 상품권
폐기. 양도 ~~취유~~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청구

앞서 살펴볼바 乙 항변사유 결재하므로 甲 침해금지
청구 ~~양도~~ ~~취유~~ 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4

14

<문-2>

I. 설문 (1)

4.9

1. 甲 행사 가능 권리-실질보상청구권

(1) 의의. 취지- 58조

상표권자의 실권권 보충을 위해, 실제 요건 하에 상표 등록 권 제자 사용행위로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58조 2항

출원공고 후 서면경고 또는 출원공고 권 출원 사보제시를 통한 경고 이후 경고 후부터 실권등록일까지 발생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실질보상청구권 행사

실질보상청구권은 상표권 실권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으며(58조 3항), 상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8조 4항)

2. 甲의 필요 권리

甲은 상표 등록 후 실제 실시에 대한 권리 행사권 위해는 출원공고 후 서면경고 또는 출원공고 권이 라도 출원 사보 제시하여 서면경고를 했어야 한다.

3. 그에 따른 결과



甲은 Z의 2023.4.15부터 2025.1월 이까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손실에 대해 2025.
 1.1 등록 이후 보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상
 품권 행사와 독립적인 것으로서 후에 상품권 행사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II. 설편 (2)

1. 상품권 침해 여부

(1) 제 1사용태양

1) 유사범의 사용 - 法 1082항 1호

타인 등록상품과 유사 상품을 지칭상품과 동일·유사
 한 상품이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침해한 것으로
 본다.

2) 사안

Z은 丙의 등록상품 근과 유사한 상품 Y를 지
 칭상품인 C와 유사한 상품 B에 사용한 바 유
 사범의 내 사용으로 丙 상품권 침해다.

(2) 제 2사용태양

1) 간접침해 - 法 1082항 2호 - 4호

① 타인 등록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은 동일·유사 상품이 사
 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목적을 교부·판매·인지 등 하는
 행위, ② 타인 등록 상품 위조·모조하거나 하게한 목적

은 그 용 제작·교박·판매 등 하는 행위, ③ ^{동일} 유사 상품 표시된
동일·유사 상품 양도·인도 위해 인지하는 행위는 상품권
침해로 본다.

2)사안

Z은 兩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품 Y를 표시한 상품 B를
양도·인도하기 위해 인지했으므로 이는 兩 상품권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상품권 침해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2. 항변사유

(1) 992 항 심사용례

1)의의, 취지

진정한 심사용례 받. 심사 받는데 위해 인정 요건 하에
심사용례 인정될 수 있다.

2)사안

Z 상품 Y는 兩 상품 출원일 전에 Z의 출원품시
로써 인식되었고, 兩 출원일부터 사용한 바, 불특정
재 목적도 보이지 않으므로 992 항 심사용례 항
변하여 침해 책임 면할 수 있다.

(2) 992 2항 심사용례

1)의의, 취지

영시생인보호를 위해, 자기 생명·성명 등은 생체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하는 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사안

2은 자신의 생년 기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 Y를 사용함으로써 이는 자신의 인적 동일성 표시 수단으로 생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고, 2에게 부정경쟁 목적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시사용권 행위에 대하여 침해 책임 면한 수 있다.

(3) 결론

2은 위와 같은 시사용권 행위는 통해 침해 책임이 면한 수 있다.

13.9 <끝>

<문-3>

I. 질문 (1)

3

1. 각 규정 취급

① 法33조 1항 3호는 기술적 표장에 대한 등록을 불허하는 규정으로, 자타상품식별력 및 독성징응성 있는 상품 등록을 제지하는 규정이다. ② 法90조 1항 2호 규정은 기술적 표장의 제3자 자유로운 사용 배제를 위한 규정으로, 기술적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상품권 등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① 法33조 1항 3호에서의 의미는 그 구성 자체의 식별력, 독성징응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구성태양도를 보고 판단하고, ② 法90조 1항 2호에서의 의미는 구성태양 뿐만 아니라 그 사용태양까지 고려하여 제3자의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II. 질문 (2)

7

1. 손해배상 청구 의미 취급 - 109조

특수상품권자의 상품권 배급을 위해 상품권자가 제3자의

동일·유사 상품을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기(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 동점제기

甲의 권리가 유해하게 결속 중이고, 甲 지칭상품 면제
 양말과 그 사용상품 양말은 모두 받은 보호하기 위해
 신는 것으로서 그 용도가 서로 유사하고 판매장소·수요자
 범위 등 서로 거의 동일하므로 양 상품 유사하다. 따
 라서 양 상품 유사 여부, 상품지 사용 여부, 혼동시할
 여부 검토한다.

3. 상품 유사 여부 - 소극

(1) 역 개념 및 역부과판 필요성 취사제

상품의 구성 부분 중 일부가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
 을 수행하는 부분, 역과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전체
 액자 같은 것으로는 위해 역부과판 필요하다.

(2) 역적 전체 적극적으로 기술 취사제

각 부분의 크기·지명성·비중·상대적, 식별력 차이, 거
 합관계,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태 등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1) 2 상품 모두 - BASIC EUE

2 상품 하단에는 'BASIC ELITE'가 상대적으로 큰
 부호를 차지하고 있는 점, 단형 부분은 상품인 양판
 과 관계 고려할 때 식별력 있고, 신사 등 기재는
 후술한 바와 같이 상품적 사용이 아닌 바 식별력이
 있거나 이익있는 점 종합적 고려하면 2 상품 요부는
'BASIC ELITE'다.

2) 甲 상품 요부 - '인타르시아'

甲 상품은 영문 INTARSIA와 한글 인타르시아
 결합상품으로 우리나라 영문 발음 수준을 고려할 때
 영문보다는 한글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甲 상품 요부는 '인타르시아'다.

3) 비교

양 상품 요부 비교시 관념·형식·의미 모두
 전혀 상이하므로 양 상품 비유사하다.

4. 상품적 사용 여부-각

(1) 상품적 사용 판단 기준 체계

상품적 사용 판단시 실제 거래계에서 상품식별판
 지로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사안

2이 사용하는 INTARSIA 부분은 2이 상품로서 사용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어렵고 오히려 2은 BA

SIC ELLE 부분을 상품으로 사용했음을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상품 INTARZIA 부분은 상품으로 사
용될 것으로 볼 수 있다.

5. 혼동가능한 여백-문구

(1) 기술적 포장 판단 기준 문제

상품이 기술적 포장으로서 혼동 가능한 여백 판단시, 상
품과의 관계, 관념, 거래실정 등 개관치므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

INTARZIA는 그 자체로는 지문적 기술 용어로서 일반 수요자
에게 양말과 관련하여 구체적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2의 사용태양은 고려해볼 만
하다. 이태리 고급기종사육, SNEAKERS 등 거래처 함
께 사용될 것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가 그 자체 구
체적 의미를 직감하지 못하더라도 품질을 나타낸
문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다. 따라서
2의 INTARZIA 부분은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으로서 2019년 1월 2
호에 따라 상품에 혼동 제한된다.

6. 평문 - 기각판결

甲과 2 상품 비유사하고, 해당 제한 사유 등에 따라
침해 아니므로 고의·과실, 손해 발생 따질 필요 없이
 甲 청구 기각될 것이다.

II. 설문 (3)

6.5

1. 분쟁쟁점

손해배상 청구시 요건인 침해 여부, 고의·과실 여부,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침해 여부 - 정극

丙은 甲 상품과 유사상품은 유사상품에 사용하긴
 있으므로 침해 해당한다.

3. 고의·과실 여부 - 정극

(1) 과실 추정 쟁치

상품권은 등록절차시 상품권법 등을 통해 공시(되)어 누구
 든지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상품권을 함으로써 사용
 하는 사업자에 대해 상품 사용권 주요 침해에 대
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
 는 점, 특허권 등과 달리 상품권법에서는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은 부정확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상품권법에서도 침해자에 대한 과실 추정이

원다.

(2) 사안

丙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는 인정됨은 사실이지
않으나 적어도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은 추정되고
이른 복권한은 사실도 아니지 않으므로 ~~사~~과실
= 추정된다.

4. 손해 발생 - 2주

(1) 상표 분사용의 경우 취지

해의 추징 규정은 손해의 발생까지 추징하는 규
정은 아니므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 사용사실을
입증하여 손해 발생을 주장·입증 해야 한다.

(2) 유사상표 사용 취지

상표의 사용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 내의 상표·상표 사용은 의미하고, 유사상표
의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3) 사안

甲은 유사 상표인 문동하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상표 사용하
고 있다. 따라서 甲 손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다.

5. 결결 - 기각판결

甲 손해 발생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판결 예상된다.

<문 4>

I. 실문 (1)

1. 재심사 청구 - 55조의2

(1) 의의. 취지

출원인 편의. 등록 도모를 위해 기결판결 받은 자 ~~에게~~ ^{에게} 하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절차

기결판결 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품 또는} ~~상표~~ ^{상표}를 ~~보존~~하여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3) 효과

기결판결 취소될 것으로 보고, 다시 심사하여 기결이유 해
제시 등록결정된다.

2. 기결판결에 대한 심판 - 116조

(1) 의의. 취지

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결판결 받은 자 ~~에게~~ ^{에게} 하 기결판결에 대한 심판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절차

거짓권징 등불 송달일로부터 3월 내에 이복 또는 제부
 상품에 대해 심판청구할 수 있다.

(3) 허위

거짓이유 해소 시 등록정제된다.

3. 甲 각 절차 가보

(1) 재심사 청구

甲은 거짓권징 등불 송달 후 허단 지났으므로 지위상품
 및 삭제보장을 통해 재심사청구 할 수 있다.

(2) 거짓권징에 대한 심판

甲은 거짓권징 등불 송달 후 허단 지났으므로 거짓권징
 받은 상품 내에 대해 거짓권징에 대한 심판청구
 할 수 있다.

(3) 선택

재심사청구나 거짓권징에 대한 심판은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은 둘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II. 설문 (2)

5.5

1. 거짓권징에 대한 심판 - 1/6쪽

출원인 불복 기회 보장, 심사의 정확성 위해 거짓권징
 송달받은 자는 거짓권징에 대한 심판 청구할 수 있다.

2. 절차상 위법성 - 미국

(1) 의견제출기회 - 1232/하, 386

출원인 절차상 보장은 위해 552 권고되어 거절결정 이유와 다른 이유 발견시 의견제출기회 주어야 한다.

(2) 거절 취지 제시제

출원인 절차상 보장 및 심사·심판 단계 적정, 신용 유지 위한 응징 요구되는 강행규칙이다.

(3) 거절결정과 다른 이유 제시제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된 거절이유와 하더라도 거절결정이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거절결정이유와 다른 거절결정이유에 해당하고, 심판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제출기회 보장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결정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로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사례

甲이 심사단계에서 B가 라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하였으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착오로 지명상품 X를 포함했고 이는 거절결정의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고, 甲도 #심판청구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거절결정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실질상 심판단계에서 甲에게

심판재심으로 의제시(출원)가 부여될 사항도 보이고
 양으로 결론의 기각심결이든 (23) 1항, 3항
 절차상 규제 위반한 사항이 보인다.

3. 결론

절차상 위반이 존재하므로 기각심결 부당하다.

<이 하 여백>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